

# 천주가사와 불안-희망의 수사학: 〈선종가〉·〈사심판가〉·〈공심판가〉를 중심으로\*

고성혜\*

|| 차례 ||

- I. 들어가며
- II. 현세 부정과 사후 세계
- III. 재판 모티프의 활용과 극적 구조
- IV. 나가며

## 【국문초록】

이 글은 신부 최양업이 포교의 수단으로 가사 장르를 선택한 이유에 대한 의문으로부터 출발했다. 그는 19세기 천주가사의 저작자 중 가장 비중 있게 다루어진 인물이다. 따라서 그간의 개별 작품론에서 나아가 그의 작품이 천주가사 내에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분석했다.

이를 위해 대표성과 변별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는 〈선종가〉, 〈사심판가〉, 〈공심판가〉를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그리고 텍스트에 그려지고 있는 사후 세계의 양상과 그것을 독자에게 전하는 방법적 특징에 대해 검토했다. 이를 통해 천주가사가 지닌 보편적인 수사학 기법을 추적하는 동시에 대상 텍스트의 독특한 서사적 의의를 확인했다.

II장에서는 천주교의 교리에서 말하는 현세 부정과 사후 세계에 관하여 살폈다. 당시 조선에서는 유교적 이념의 영향으로 내세관이 부정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또한 신자들은 갖은 박해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양업이 할 수 있던 것은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B5A07063162)

\* 전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천주를 믿고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가면, 그 끝은 다르리라는 믿음에 대한 보상을 알려주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선종가>는 사후 세계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를 들어 명확하게 증명하는 방식을 활용했음을 알 수 있었다.

Ⅲ장에서는 <사심판가>와 <공심판가>를 분석하며 감정을 자극하는 내러티브의 구성을 살펴보았다. 이 작품들은 사심판과 공심판이라는 재판의 모티프를 차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인간의 실존적 불안을 자극하고 거기에서 일으킨 희망의 플롯으로 신심을 강화하는 구조를 이루고 있다. 불안과 희망을 중심축으로 하는 감정 서사 구조는 천주가사의 전형적인 수사학 기법이다. 그러나 <사심판가>와 <공심판가>는 여기에서 나아가 재판 모티프와 등장인물을 이용해 기존의 작품들보다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 글은 <선종가>와 <사심판가>, 그리고 <공심판가>를 통해서 사후 세계를 어떤 방법으로 이미지화 하였는지, 또한 그 사후 세계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동원되는 감정의 구조와, 그것을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였는지에 대해 살폈다. 결과적으로 세 작품은 불안과 희망이라는 감정을 축으로 하는 보편적인 천주가사의 서사전략을 이용해 천주교의 신앙을 알리고 사람들의 의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 대표적인 가사 작품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천주가사, <선종가>, <사심판가>, <공심판가>, 수사학, 설득, 감정

## I. 들어가며

종교적 목적을 위하여 교리를 노랫말로 바꾸어 부르는 행위는 언제부터 행해졌을까. 아마도 동서양을 막론하고 꽤 오래 전으로 소급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아우구스티누스의 <도나투스 논박 시편 주해(Psalms contra partem Donati)>(394년) 역시 시편을 알파벳 운율에 맞추어 새롭게 주해한 작품이다.<sup>1)</sup> 일반인에게 있어 심오한 신앙의 진리나 방대한

양의 교리는 쉽게 숙지할 만한 내용이 아니다. 때문에 이를 쉽게 기억하도록 돕는 방법이 필요하다. 일상생활과 밀접하면서 동시에 자유롭게 향유될 수 있는, 일종의 ‘보급화’ 작업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조선에서 종교가사는 보통 동학가사, 불교가사, 천주가사를 의미하며 다른 말로 포교가사라 일컫기도 한다. 포교가사란 비신자를 신자로 끌어들이기 위한 목적 내지는 기존 신자들의 믿음을 더욱 공고히 만들어 주는 기능까지를 포함한다. 특히 19세기는 가히 종교가사의 시대라고 할 만하다. 제한적이거나 포교의 자유를 획득한 천주교와 동학이 가사에 교리를 담아 활용하였기 때문이다.<sup>2)</sup>

이 시기에 제작된 천주가사 중 저작자를 추론할 수 있는 작품 가운데, 가장 많은 작품의 저작자로 지목되는 인물은 최양업(崔良業 토마스, 1821-1861) 신부이다. 이러한 까닭에 그간 학계에서는 인물, 인물과 저작물 사이의 진위관계 여부, 작품론 등에 관한 많은 선행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다.<sup>3)</sup>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 중 상당수는 최양업의 신부라는 직업적 특성

- 
- 1) 최원오, 「최양업 신부의 천주가사에 대한 교부학적 연구에 관한 논평」, 『가톨릭신학』 제3호, 한국가톨릭신학학회, 2003, p.218.
  - 2) 김종진, 「19세기 불교가사의 작가 복원과 그 문화사적 함의」, 『국제어문』 제35집, 국제어문학회, 2005, p.38.
  - 3) 유병일, 「천주가사를 통해 본 최양업 신부의 신앙」, 『사목』,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84; 방태남, 「천주가사 <스항가>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정양모, 「최양업 신부의 사목과 사상」, 『종교신학연구』 제7집, 서강대학교 비교사상연구원, 1994; 박금옥, 「최양업 신부의 선교 활동과 그 의미」, 『교회사연구』 제14집, 한국교회사연구소, 1999; 조규식, 「최양업 신부의 영성」, 『교회사연구』 제14집, 한국교회사연구소, 1999; 차기진, 「최양업 신부의 생애와 선교활동의 배경」, 『교회연구사』 제14집, 한국교회사연구소, 1999; 김중원, 「<思鄉歌>의 長型化 樣相과 그 意味」,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김진소, 「최양업 신부의 천주가사 연구의 의의」, 『최양업 신부의 선교활동과 천주가사』, 양업교회사연구소, 2003; 양희찬, 「국문학의 입장에서 본 최양업 신부의 천주가사」, 『최양업 신부의 선교활동과 천주가사』, 양업교회사연구소, 2003; 차기진, 「최양업 신부의 천주가사와 저작 배경」, 『최양업 신부

상 교리적 접근에 치우쳐 있거나, 작품론의 경우에는 특정 작품의 분석에만 머물러 있다는 한계가 있다.

조선에서 천주교는, 서학(西學)이라는 학문의 형태로 시작하여 후에 종교로서 사유되었다. 이 과정은 그야말로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 그리고 눈물이라 이야기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최양업은 무엇을 보았던 것이고 왜 천주가사를 선택했던 것일까. 본고는 이러한 의문을 가지고 출발한다.

최양업은 조선 최초의 신학생이자 두 번째 조선인 신부이다. 신부가 되어 1850년에 조선으로 들어온 후 1861년, 과로로 죽음에 이를 때까지 외국인 선교사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을 돌아다니며 사목활동을 했다. 그 와중에 그는 방대한 양의 저술 활동을 하였는데, 본고에서 살펴볼 천주가

---

의 선교활동과 천주가사』. 양업교회사연구소, 2003; 장인산, 「최양업 신부의 천주가사의 가르침에 대한 교부학적 고찰」, 『신학전망』 제162집, 광주가톨릭대학교 신학연구소, 2008; 조원형, 「천주가사 <사향가>에 대한 텍스트언어학적 검토」, 『텍스트언어학』 제24집, 2008; 류한영, 「최양업 신부의 사향가에 나타난 선조들의 신앙과 영성」, 『땀과 꿈의 사제 최양업』,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2009; 차기진, 「최양업 신부의 행적에 대한 재검토-유학로와 선종지를 중심으로」, 『교회사학』 제7집, 수원교회사연구소, 2010; 신대원, 「최양업 신부의 생애와 교회사적 몇 가지 쟁점 고찰」, 『교회사학』 제8집, 수원교회사연구소, 2011; 조원형, 「천주가사 <사향가> 개작본의 텍스트 구조 대조 분석」, 『교회사연구』 제36집, 한국교회사연구소, 2011; 김수태, 「최양업 신부의 한국천주교회사연구 - 가문의 순교자 전기를 중심으로-」, 『교회사학』 제10집, 수원교회사연구소, 2013; 김은희, 「<사향가>에 대한 일고찰」, 『반교어문연구』 제34집, 반교어문학회, 2013; 조지형, 「최양업 신부 소작 천주가사의 목적과 특성」, 『누리와말씀』 제34집, 인천가톨릭대학교 복음화연구소, 2013; 김문태, 「천주가사 <사향가>의 교리 실현화 양상」, 『신학전망』 제184집, 광주가톨릭대학교 신학연구소, 2014; 김문태, 「천주가사 <스십판가>·<공십판가>의 교리 형상화 양상과 복음화 방향」, 『신학전망』 제190집, 광주가톨릭대학교 신학연구소, 2015; 한명수, 「인간의 분향을 생각하는 노래, 사향가」, 『오늘의가사문학』 제13집, 고요아침, 2017; 고성혜, 「천주가사 <사향가>의 감성적 설득기법」, 『감성연구 15집,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인문한국사업단, 2017, 한명수, 「죽음에 대한 가르침을 알기 쉽게 부른 선종가」, 『오늘의 가사문학』 제17집, 고요아침, 2018 등이 있다.

사 역시 이에 포함된다.

그는 생전에 “현재의 상황에서 기적적으로 우리에게 유리한 것이라고는 오직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하였다. 그 중 하나가 바로 ‘한글’의 존재이다. 한글은 “교리 공부하는 데 매우 유용”하며, “쉬운 한글 덕분에 세련되지 못한 산골에서도 신자들이 빨리 천주교 교리를 배우고 구원을 위한 훈계를 받을 수가 있”다고 하였다.<sup>4)</sup> 이는 최양업이 상당한 양의 한글 교리서와 천주가사를 짓게 된 배경을 설명해 준다.

이제 우리는 그의 천주가사가 어떠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하여 고민해야 한다. 역사적 사실을 서술하는 과정은 사건에 대한 객관적 재현을 넘어선다. 사건을 기록하는 서술자의 기억 매커니즘에 의해 재구성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이다.<sup>5)</sup> 해당 이론은 비단 역사적 사실을 서술하는 과정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문학의 측면에서도 얼마든지 적용 가능하다. 텍스트는 텍스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 이전에 그것을 제작하는 작자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특히나 이미 정해져 있는 객관화된 자료인 『성경』의 교리를 두고 작자의 자의로 재구하는 방식을 취하는 천주가사를 놓고 본다면, 이러한 이야기는 더욱 흥미롭게 다가온다.

이와 같은 생각을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최양업의 저작이라고 알려진 작품들을 분석함으로써 천주가사의 보편적인 모습을 정리해 보려고 한다. 연구 대상의 선정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표성을 가져야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작자가 밝혀진 천

4) 배티 사적지 편, 『최양업 신부의 전기 자료집 제1집 : 최양업 신부의 서한』, 천주교 청주교구, 1996, 여덟 번째 서한 중.

5) 알라이다 아스만, 변학수 역, 『기억의 공간』, 경북대학교 출판부, 1999, pp.60-61; 윤인선, 「최양업 신부 서한에 나타난 고난 경험에 대한 치유의 글쓰기」, 『교회사연구』 제46집, 한국교회사연구소, 2015, p.46 재인용.

주가사 중 가장 많은 작품의 저자로 꼽히는 것은 최양업이다. 게다가 그는 신부로서 직업적으로도 상당한 권위를 담보 받는다. 이에 그의 작품은 일반인 혹은 작자미상의 작품보다 대표성을 띤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변별성을 가져야 한다. 본 연구자는 종교가사로서 천주가사가 가지는 결정적인 변별점으로 ‘내세관’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기존 천주가사보다 본격적으로 사후 세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작품을 대상으로 삼았다. 그 결과 본고에서 다룰 가사 텍스트는 <선종가>와 <사심판가>, 그리고 <공심판가>이다.<sup>6)</sup>

천주가사는 성경이 아니다. 따라서 교리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기보다는 신자를 교화시키려는 목적으로, 가사라는 문학 장르를 통해 재구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그 목적성 때문에 일종의 ‘설득’이 필요한 장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다. 이에 어떠한 수사학의 방법이 이용되었는지 역시 파악되어야 한다. 그래서 먼저 대상 텍스트에서 그려지고 있는 사후 세계의 양상을 살펴보고, 그것을 독자에게 전하는 방법적 특징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미리 밝히지만, 본고에서는 사후 세계가 어떤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지 등에 무게를 두지 않는다. 다만, 이 사후 세계를 어떤 방법으로 이미지화 하였는지, 또한 세계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그려지는 감정의 구조와, 그것을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였는가에 대해 초점을 맞추도록 한다. 결과적으로 이 글은 당대 천주가사가 지닌 보편적인 수사학 기법을 추적하는 동

6) 최양업의 친작에 대하여는 아직까지도 그 의견이 분분하다. 그러나 <선종가>, <사심판가>, <공심판가>는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친작으로 인정하는 바, 본고에서는 제목 밑, 괄호 안에 “최도마신부 저술”이라고 적혀있는 <선종가>부터 이어 실린 <사심판가>, 그리고 “조선 최신부 저술 중”이라 말미에 밝히고 있는 <공심판가>를 수록한 「박동헌본」(김영수, 『천주가사 자료집』 上, 가톨릭대학교출판부, 2000)을 저본으로 삼아 분석한다.

시에 대상 텍스트의 의의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논의는 작가뿐만 아니라 작품을 접하고 접할 수밖에 없었던 독자들이 구성하는 공동체 삶에 끼친 영향까지를 추적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하리라 기대한다.

## II. 현세 부정과 사후 세계

본고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시대 배경은 19세기 조선이다. 이 말은 곧 유교(유학)를 제외한 모든 학문과 종교가 이단 취급을 받았던, 바깥 말해 사상의 자유를 보장받지 못하는 폭력의 시대였다는 의미이다. 조선에서 유교는 학문이자 이념이었고, 동시에 종교였다.

하지만 유교에는 여타의 종교와 결정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기본적으로 유교는 사후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사후 세계, 즉 지옥과 천국(극락)의 관념은 불교의 업설(業說)과 윤회사상을 통해 이해되어 왔다.<sup>7)</sup> 하지만 18세기부터 이 사후 세계관을 가진 또 다른 종교가 유입되었다. 바로 천주교이다.

지금 서울에서부터 말하자면 친구 사이나 벼슬하는 선비들 사이에 물들은 자가 많고, 다른 동네의 잘못 빠져든 소년들에게도 차차로 뺏어 나가고 있다 합니다. 더욱이 총명하고 재주 있는 선비가 십중팔구이며, 나머지 얼마 안 되는 자들은 주권 없이 취한 듯 미친 듯 떠들며 따르다고 합니다. ... 그 중에 친하고 무식한 자와 쉽게 유혹되는 부녀자와 아이들은 한 번 이 말을 듣기만 하면 목숨을 바쳐 뛰어 들어가 이 세상의 사생을 버리고 만겁의

---

7) 나희라, 「통일신라와 나팔려초기 지옥관념의 전개」, 『한국문화』 제43집,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08, pp.246-247쪽; 김기중, 「조선후기 문학작품의 지옥 형상화와 그 성격」, 『동양고전연구』 제66집, 동양고전학회, 2017, p.132 재인용.

천당과 지옥을 마음에 달게 여기며, 한번 들어간 뒤에는 미혹됨을 풀 길이 없다고 합니다.<sup>8)</sup>

천주교의 전파 속도는 남녀노소,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그 기세가 대단했다. 동시에 그럴수록 탄압을 받았다. 나라의 지배 질서를 무너뜨린다는 위기의식을 심어 주었기 때문이다. 특히 조선의 유교는 주로 국가 통치 수단 정도로만 인식했던 고려 때와는 달리 종교적 이념이 강했다. 이러한 강렬한 이념 지향으로 인해 중국과도 확연히 구분되는 정통 의식이 있었고, 이단관도 더 철저했으며 배타적인 성향을 띠었던 것이다.<sup>9)</sup>

그러나 수차례에 걸친 대대적인 박해에도 불구하고 신자는 늘어갔다. 그 이유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사실 유교는 조선인에게 강력한 종교적 확신을 제공하지 못 하였다. 유교는 소수의 사람에게는 벼슬이나 학자로서의 명성을 얻고자 공부하는 것이고, 대다수의 사람에게는 바른 예절과 예식에 관한 정형화된 형식을 보전하는 것이었다. 나라에서 철저하게 금했다고는 하나 미신과 관련한 행위가 지속되었음은 사람들의 영적인 열망이 원시적인 형태로 표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sup>10)</sup> 그래서 사람들에게 천주교는 영적 열망을 충족시켜 주는 분출구였고 내세관은 그야말로 매력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제, 사회적으로 부정시되던 개념을 알려야 하는 상황이 왔다. 내세관에 대한 믿음을 주고, 확신시켜 주어야 했다. 최양업은 그 방법으로 자신이 가진 신앙의 믿음을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증명하려 했다. 다음은 <선종

8) 이만채, 『벽위편』; 금장태·진순옥 외, 『순암 안정복의 서학인식과 교육사상』, 성균관대 출판부, 2012, pp.64-65 재인용.

9) 김희정, 「한국 유교의 근본주의 : 조선 유교의 이단론(異端論)을 중심으로」, 『한국종교연구』 제10집, 서강대학교 종교연구소, 2008, p.2.

10) 세실 허저스 외, 안교성 역, 『영국성공회 선교사의 눈에 비친 한국인의 신앙과 풍속』, 살림, 2011, pp.67-68.

가>의 도입 부분이다.

가련허다 세상사름 난사람은 다죽는다  
보탄하에 모든사름 빅년전에 모다죽네 (1-2)

...

네로부터 이제까지 안죽난자 허나업네  
예수성모 죽으셨네 우리엇지 면홀손가  
귀천선악 무론허고 죽잔난자 그뉘런고  
우리조상 다죽언네 우리엇지 면홀손나 (6-9)

사람이라면 마땅히 태어나고 죽는다. 삶의 길고 짧음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겠으나 예로부터 지금까지 죽지 않은 자가 없었으니, 그것은 예수와 성모도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삶과 죽음은 귀하거나 천하거나 착하거나 나쁘거나 할 것 없이 모두 같다. 우리 조상이 모두 그러하였는데 우리라고 다를 것은 없다. “연속부절 강물갯히 이물가면 저물오고” “더물가면 후물”이 오는 것처럼 자연의 이치가 그러하다.

문제는 그 이후이다. 유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그 시신을 깨끗하게 얹고 엄중히 장례를 지내며, 위패를 모시고 해마다 기일에 맞추어 죽은 이를 위한 음식을 준비해 제사를 드린다. 그것이 조상을 기리는 방법이고 지키지 않으면 패륜이었다. 그러나 작자는 이러한 모든 것이 헛된 일임을 말한다.

령혼육신 결합하면 싱명잇는 사람이오  
령혼육신 찌난후는 싱명업는 사람이오  
령혼육신 찌난후에 시죽업는 시테로다 (17-19)

천주교에서 생각하는 인간은 영혼과 육신이 결합되어 있는 상태의 존재

이다. 그래서 인간이 죽으면 영혼과 육신은 서로 떨어지게 되어 남은 것은 그저 시체에 불과하다. 영혼이 이미 떠나 아무 것도 남지 않았는데 무엇을 위해 음식을 차리고, 무엇을 향해 치성을 드린단 말인가. 여기까지만 본다면 <선종가>는 인생의 공허함을 읊는, 다소 허무주의적인 노래로 읽힐지 모른다.

한편, 최양업은 서두에서 말한 바와 같이 신부로서 조선에 입국하여 죽을 때까지 전국 각지의 교우촌을 찾아다니며 신자들을 만났다. 여기서 말하는 교우촌이라는 것은 그저 신자들이 모여 사는 마을을 가리키는 게 아니다. 당시의 신자들은 대대적인 박해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핍박을 받고 있었다. 특정되지 않는 다수의 신자들은 “체포, 투옥, 형벌, 사형” 등에 휘말리거나 “집안이 몰락하여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기도 하였다. 자연스레 이런 일을 피해 “사람이 살 수 없는 산 속이나 산골짜기에 숨어서 비참하고 치욕적인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들에 대한 “증오와 멸시”의 시선과 신자임이 밝혀졌을 때 겪게 되는 “박해와 온갖 위험”은,<sup>11)</sup> 이 교우촌이라는 단어에 모두 내포되어 있다. 포교지는 “박해자들의 참혹한 광란으로 마구 난폭하게 짓밟겨”진 상태였던 것이다.<sup>12)</sup>

최양업은 그런 그들을 볼 때마다 “저들을 도와줄 능력이 도무지 없는” 자신의 “초라한 꼴”에 “한없이 가슴이 미어”졌다.<sup>13)</sup> 그런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천주를 믿고 성실한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가면, 그 끝은 다를 것이라는 믿음에 대한 보상이었다.

<선종가>는 이러한 최양업의 생각이 잘 녹아 있는 작품이다. “착히살아 선종하면 텃상”으로 가게 되고, “몹시살아 악스하면 디옥”으로 가게 된다.

11) 배티 사적지 편, 같은 책, 여덟 번째 서한 중.

12) 배티 사적지 편, 같은 책, 여섯 번째 서한 중.

13) 배티 사적지 편, 같은 책, 일곱 번째 서한 중.

이어 신자들의 행동을 주의시킨다. “십계스규 열심슈계 턴주계명”을 지켜야 비로소 “세상옥을 버셔나서 주모디전”에 오르게 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십계명과 성교사규(聖敎四規)<sup>14)</sup> 신자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덕목이었고, 이런 삶을 살면 결국 천국에 올라 천주와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된다고 믿었던 것이다. 반면, 악자는 “부귀영화 만히쓰고 빈궁자를” 업신여긴다. 게다가 “교오간인 미식분노 탐도질투 히팅”<sup>15)</sup>하면 결국 죽어서 “세상영복 다버리고 흑마중에 종이되여” 버리고야 만다.

작자는 앞서 인간으로 태어나면 예외 없이 모두 죽고, 일단 죽으면 이 땅에 남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어 그렇게 죽어 없어지더라도 생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선한 자와 악한 자의 삶을 예로 들었다. 그 결과는 죽음 후의 세계, 즉 내세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러한 흐름 안에서 작품의 마지막은 다시 죽은 후 현세에 남은 몸으로 돌아간다. 다음을 보자.

독훈기운 구린내는 눈을감고 코를막네  
부모쳐즈 못견되고 친천봉우 도망흐네 (87-88)

...

장스훈지 수일만에 분묘다시 열고보면  
놀납고도 무섭도다 비의굽기 크게열어  
구린기운 뿜어내며 오식버레 우물우물  
눈시울은 씩어지고 눈방울을 곱팡쓸고  
입시울은 쳐져지고 아리웃니 응무럿네  
코부리는 문혀지고 코굽게는 귀덕이오  
귀박휘는 접히이고 귀굽게는 시즙이오

14) 천주교 신자가 지켜야 할 네 가지 법규. 첫째, 주일과 의무 축일을 지키고 미사에 참례할 것; 둘째, 지정된 날에 금식제와 금육제를 지킬 것; 셋째, 적어도 해마다 한 번은 고해성사를 받을 것; 넷째, 적어도 일 년에 한 번 부활 시기에 영성체를 할 것.  
15) 죄의 근원이 되는 칠죄종. 교만, 인색, 음란, 분노, 질투, 탐욕, 태만을 이룸.

머리털은 어즈러워 형상보기 어렵도다  
 썩은지 지 죽음이오 썩은고기 형상이라 (113-121)

...

찬미하고 높히더니 지와흠이 되엿도다  
 호의호식 높흔몸이 버레밥이 되엿고나  
 안부존영 일삼더니 만고중에 빠졌도다 (128-130)

작품에서 설명하는 죽은 후의 ‘이 땅에’ 남은 몸은 처참하다. 시체가 썩는 과정을 가히 가학적이라고 할 만큼 구체적이게, 더군다나 <선종가>의 전체 분량을 놓고 봤을 때 상당히 많은 비중을 할애하여 설명하고 있다. 작자가 노린 것은 충격적인 장면을 제시함으로써 사람들에게 각인하고자 하는 효과였다고 생각한다. 또한 앞선 내용과의 그 흐름이 탁월하다.

정리하자면 이렇다. 모든 인간은 죽으며, 일단 죽게 되면 현세엔 아무 것도 남지 않는다. 또한 현세에서 살아낸 삶의 모습으로 천국과 지옥을 가게 된다. 천주교에서 인간의 죽음은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며, 현세에서 큰 죄가 없는 상태로 죽는다는 것(善終)은 영생과 행복의 기본 조건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sup>16)</sup> 그리고 다시 한 번 부질없는 현세의 빈껍데기를 제시함으로써 내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 “고신하고 극기하야” “선종흠을 엇”자고 당부하며 마무리한다.

### Ⅲ. 재판 모티프의 활용과 극적 구조

최양업이 조선에 도착했을 무렵, 신자의 수는 약 13,000여 명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박해를 피하여 전국으로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국내 소수의

16) 한명수, 「죽음에 대한 가르침을 알기 쉽게 부른 선종가」, 같은 글, p.91.

사제들이 돌보기는 거의 불가능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양업은 어떠한 행동을 취해야 하였고 취할 수 있었을까.

그의 선택은 신자들을 돌보는 일상적인 활동에서 나아가 교리서의 번역과 전파에 힘쓰는 것이었다. 실제로 최양업은 12년 동안 나라 곳곳의 교우 공동체를 찾아다니고 교리를 전파했다. 그리고 그가 죽은 1861년 말, 다시 한 번 지역적인 박해와 억압이 있었다.<sup>17)</sup> 이는 신자들이 급격하게 늘어났다는 반증으로 볼 수 있다.

현실이 혼란스럽거나 힘들수록 사람들은 무엇인가에 더욱 천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자는 그 모습을 천주가사를 통해 가늠해 보았다. 결국 천주가사에서 보이는 특정한 감정은 무엇이며, 그것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와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는가의 문제가 될 것이다.

천주가사에서 드러나는 천주에 대한 맹목적인 숭배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믿음과 사명으로 재현된 ‘진실’이다.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가사를 제작한 사람의 창작 동기이다. 특히 종교가사의 경우, 기존 신앙을 공고하게 하거나 혹은 비신자를 신자로 이끌기 위한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바꿔 말하면, 향유자를 설득 내지는 선동(煽動)해야 한다는 말이다. 가사의 장르적 특성상, 설득의 여러 방법 중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감정을 자극하는 일이다. 때문에 작품 내에서 감정 내러티브의 구성이 중요시될 수밖에 없다. 즉 수사학 중 ‘파토스(Pathos)’를 이용하고 있다는 말이다.<sup>18)</sup>

작가는 가사 <사심판가>와 <공심판가>에서 사심판(私審判)과 공심판

17) 파리 외방전교회, 김승욱 역, 『조선 천주교 그 기원과 발전』, 살림, 2015, p.88.

18)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에서 설득의 수단으로 ‘로고스(Logos)’, ‘에토스(Ehtos)’, ‘파토스(Pathos)’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효과적인 설득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각각 논리와 인격, 감정이나 정서를 의미한다.

(公審判) 장면을 제시한다. 여기에서 사심판은 사람이 죽은 직후에 받게 되는 심판을 말하며 심판 후에는 영혼이 가야할 곳, 즉 천국이나 지옥, 혹은 연옥행이 결정된다. 그리고 공심판은 종말에 그리스도가 재림하여 행하는 최후의 심판으로, “남을 죄짓게 하는 모든 자들과 불의를 저지르는 자들을 거두어, 불구덩이에 던져 버릴 것이다. … 그때에 의인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처럼 빛날 것이다.”라는 말과 같이 악인은 지옥으로 의인은 천국으로 간다.<sup>19)</sup>

천주교 신앙을 믿는 입장에서, 이와 같은 심판은 인간이라면 누구든 받아야 하고 피할 수 없다. 이제, 작품에서는 이러한 심판이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지, 그러면서 독자에게 어떠한 감정을 불러 일으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사심판가>의 일부이다.

    천주의 착함심은 진실하신 전선이라  
    우리사람 사랑함을 죽기까지 하였으나  
    엄하시다 주의의로 무악불벌 용서업다 (10-12)

기본적으로 천주는 착한 존재이다. 그냥 착한 존재가 아니라 완전하고 오묘한 ‘선’이다. 그의 선함은 “무한함도 무한하다”. “강심수난 밝으심은 네복락을 휘함이”었고, “만고능욕 밝으심도 네영광을 위함”이었다. 또한 “십자가에 죽으심도 네칭명을 위”한 것이었다. 천주는 이와 같이 인간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커다란 은혜를 주는 존재로 그려진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인간들이 천주의 사랑을 받는 것은 아니다. 천주의 의로운 뜻은 별하지 않는 악이 없다는 언급은 “전선”(全善)과 극명한 대비를

19) 주교회의 성서위원회, 「마태오 복음서」 13장, 41-43절, 『성경』,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1.

이룬다. 이러한 대비적 짜임은 곧 다시 마귀와 수호천사의 등장으로 나타난다.

“흉포한 마귀들”이 말한다.

영광테면 다큰기로 주디전에 허원하고  
나를품고 내말드려 비주비는 이단하고  
내유감을 흥게조차 공은스는 저버리고  
중개하신 구속지은 갑슬내여 사갯스나  
주의의즈 슬히녀여 나의말만 드럿스니 (37-41)

심판을 받고 있는 죄인은 자신의 뜻으로 천주의 은혜를 저버렸다. 여기에서의 ‘나’란 마귀이므로 마귀를 좇아 천주를 배반하여 이단자가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천주가 십자가에 못 박혀 인류의 죄를 대신 씻어 구원한 은혜(救贖)뿐 아니라 천주의 자녀(義子)이기도 포기하고 마귀의 말만 따랐다. 이는 천주의 뜻이 아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어서 내게 붓치”라며 죄인을 지옥으로 보내라고 주장한다.

이어 이 모습을 지켜보던 “호슈턴신”이 말한다.

일성은혜 저바림을 스스썰니 증거하야  
엄칙하야 니른말슴 바른길흠 인도하나  
샤특흠을 아니스코 피죄츄덕 아니하고  
악흔벗을 쓴케하나 츠자가며 범죄하고  
통회고히 기히주어 턴주성총 엇게하나  
명백고히 아니하고 진절통회 업섯시며  
사죄지은 엇엇시나 즉시다시 쏘범하고  
마귀너를 모히하야 디옥길노 잇글거날  
유감인줄 붉이알고 피죄안코 드럿시니  
어렵고도 흉악하다 이룰엇지 구히리오 (49-58)

비록 “턴쥬의 명을밧아 평싱” 곁에서 수호하며 “스스곳곳 도아주”었지만, “나의말은 아니듯고 마귀말만 드러조츠” “무수죄만 지었시니 이제난 흘수업다”. 사실 마귀와 천사는 전형적으로 대조적인 존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증언은 죄인의 잘못을 확인시켜줄 뿐이다. 재판에서 죄인의 삶을 추적한 결과, “딴답홀말 아조업고 도망홀길 전혀업”다. 어디 그뿐인가. “도망홀곳 전혀업고 구영홀 법이업”다. 수호천사가 변명을 해주고 싶지만 이 불쌍한 영을 구할 방도가 없는 것이다. 결국 “참혹호”게 “변빅 발명 홀말업”는 죄인은 “비쥬비는 대죄인”으로서 지옥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가사 작품을 보면, 각 행이나 비교적 짧은 행끼리 대조 및 대비 시키는 모습이 많은데 여기에서는 큰 의미 단락으로 대조를 이루어 눈길을 끈다. 이러한 기법은 오히려 재판의 결과를 드라마틱하게 만들어주고 있다. 천주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은 결과는 실로 참혹했다.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이, 마귀가 “다섯손톱 버려들고 달너드러 둘너싸셔” 함께 지옥으로 가는 것이다. 그곳은 “밍호독룡”이 마중 나오는 맹렬한 불길 속이었다.

<공심판가>의 경우는 어떠한가. 역시 공심판이 이루어지는 풍경이 제시되고 있다. 공심판이 이루어지기까지의 세상 풍경이 그려지고, “턴신이 쥬 명밧아 호기를 크게 불”어 “만만인을 불너닉여 부활당판”을 하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선인과 악인이라는 두 인간이 심판의 대상으로 등장하며 이들의 심정이 교차되어 대비되고 있다.

턴당성역 디옥악령 본육신에 곁합호야  
 착한령혼 육신보고 희락이 지극호야  
 세상에서 내령터로 고신극괴 종신희고

스욕편정 이긴고로 영복갑시 네복이라  
 사랑흐은 육신이어 영원동락 흐리로다  
 악훈령흔 육신보고 원수롭고 증그러워  
 원망흐고 툃훈말이 스욕편정 아니슨코  
 내명을 아니듯고 네편익만 좃춧더니  
 원수로온 육신이어 동수영고 네탓이라  
 악훈육신 검은형상 더러운게 니음시라  
 오관빅테 불이타고 전신이 라창이라  
 착훈육신 광명흠은 태양에서 빛나도다  
 그몸에 광명흠을 만국만왕 비길소냐  
 아람다운 즈식이오 무슴것이 거룩홀가 (41-54)

주목할 만한 사실은 <공심판가>에서 천주가 직접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심판의 주재자가 천주라는 데에서 기인하는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나 전능한 신으로서 늘 멀리 있을 것이라 생각되던 존재가, 앞으로 ‘직접’ 나와 선한 자와 악한 자를 나누고, 이들을 향해 ‘직접’ 칭찬과 질타를 한다는 내용 구성은 충격적이라고 할 만하다. 이와 같은 짜임은 천주의 존재를 확고히 하기 위해 작품 전반에 세운 것으로 작가의 철저한 의도가 들어가 있는 것이라 볼 수 있겠다.

이러한 내용 뒤에는 지옥과 천국의 모습이 동시에 그려지고 있다. 천주에게 질책을 받은 악한 자는 “사마악귀 포악형벌 유황슬난 땃화중에” 끌려가, “절통흐고 원흔흐야 복디통곡”하지만, 결국엔 “마귀악인 다 삼키며 디옥문”으로 들어가 영원히 갇히고야 만다. 반면 칭찬을 받은 선한 자는 천주의 “툃당에 오라”고 하시는 말씀에 “쥬테안혜” 머물게 된다. 그리고 “쥬와흠씩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되는 것이다.

<사심판가>와 <공심판가>는 사심판과 공심판이라는 재판의 모티프를 통해 어떤 효과를 의도하였는가. <사심판가>와 <공심판가>의 두드러지는

특징은 첫째, 재판 과정에서 등장하는 인물이다. <사심판가>에서는 마귀와 천사가, <공심판가>에서는 천주가 직접 등장하고 있음을 살폈다. 더욱 독특한 부분은 이들에게 심판을 받는 대상이 뚜렷하게 특정화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심판을 받는 이는 ‘나’일 수도 있고 내가 아닌 주변의 누군가가 될 수 있다. 즉, 텍스트 안에서 표현되는 누군가의 심정은 바로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 되는 것이다.

다음은 심판의 장면이다. 심판을 위해 악마와 천사가 대화하는 장면이라든지, 천주가 직접 엄하게 다스리는 장면은 독자로 하여금 극적인 자극을 준다. 아직 죽지 않았음에도, 아직 세상이 끝나지 않아 심판을 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눈앞에서 직접 심판을 받고 있는 듯한, 혹은 그것을 목격하고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받는 착각이 가져오는 감정은 불안과 희망이라고 볼 수 있다. 불안은 불확실한 위협에서 오는 실존적 감정이다. 다시 말해 불안의 밑에 깔린 기본적인 위협은 실존적이어서 우리의 존재, 미래의 행복, 생과 사처럼 추상적이고 모호하며, 지속적인 근심을 야기하는 것이다.<sup>20)</sup> 때문에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 언젠간 도래할 죽음 앞에서,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이재판이 주는 중압감은 상당하다. 천주를 믿지 않고 교리대로 살지 않으면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을 받는다. 이러한 메시지는 원천적인 감정인 불안을 이용한 일종의 전략이다.

반면, 천주를 믿고 그 가르침을 따르면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다. 천주를 믿으며 천주교의 신자가 된다는 것은, 천주의 선택을 받은 자라는 예외 의식을 표상하기도 한다. 쉽게 말해 선민의식과 비슷한 것이다. 나는 선택 받았으므로 행복해지리라는 희망이다. 이 희망의 감정은 오히려 삶의

20) 리처드 래저러스버니스 래저러스, 정영목 역, 『감정과 이성』, 문예출판사, 1997, p.73-79.

나쁜 조건에서 자극된다. 두려워하는 결과가 있을 때에 그것이 어떠한 노력을 동반한 행동 등으로 더 괜찮아질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 희망을 만들어내는 것이다.<sup>21)</sup> 따라서 위에서 살펴본 작품들은 인간의 실존적 불안을 자극하고 거기에서 일으킨 희망의 플롯으로 신심을 강화하는 구조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감정 서사 구조는 천주가사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천주에 대한 믿음을 기저로 두고 그것을 부정하였을 때 야기되는 결과들이 주는 ‘불안’과 사회적으로든 개인적으로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믿음을 만들거나 지켜내었을 때의 아름답고 행복한 내세가 주는 ‘희망’을 중심축으로 구성되는 것이다. 그런데 <사심판가>와 <공심판가>는 이러한 감정 중심축을 그대로 드러내며 천주가사의 전형을 보여주면서도 기존의 작품들보다 극적이다. 다시 말해 작품에서 작자는 불안과 희망이라는 감정의 큰 결을 동시에 제시하면서 희망이 주는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내러티브는 텍스트 전반에 걸쳐 재관 모티프와 극적인 구조를 통해 효과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여기에서 극적 구성은 때로는 잔인하기까지 한 등장인물들의 말에 충격을 받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만든다. 그리고 결국에는 천주에 대한 믿음을 공고히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만든다. 가사에 이러한 서사적 기능을 장착한 것은 쉬이 찾아보기 어렵다. 정철의 <속미인곡>이 대화체로 구성되어 대표적인 작품으로 꼽을 수 있을 뿐이다.

이렇게 서로 이질적인 감정은 가사 텍스트 안에서 정밀한 구조적 짜임을 통해 마치 악마와 천사, 그리고 천주가 생생하게 살아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심판을 체험하게 해주는 것이다. 재차 말하지

21) 리처드 래저러스·버니스 래저러스, 정영목 역, 같은 책, p.113-114.

만 천주가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크게 보아 포교이다. 천주의 가르침을 알리고 사람들을 그 가르침으로 이끄는 것이다. 따라서 이 가사를 읽은 독자들에게 천주에 대한 희망, 나아가 승배의 감정을 갖게 하고, 텍스트의 전개와 함께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자연스럽게 천주교에 동조하고 공감하게 만들며, 궁극적으로는 독실한 천주교 신자가 되게 하는 것이 가사의 지향점이다.

가사의 감정을 통한 서사전략은 신자와 비신자 모두에게 비슷한 효과를 줄 수 있다. 때문에 이상의 작품들은 천주교의 신앙을 알리고 사람들의 의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대표적인 가사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IV. 나가며

지금껏 본고는 천주가사 <선종가>, <사심판가>, <공심판가>를 대상으로 수사학적 측면에서 감정 내러티브의 실현 양상을 주로 살펴보았다. 논의의 결과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우선 최양업은 기본적으로 사후 세계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또한 이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선종가>를 통해 천주교의 교리에서 말하는 현세 부정과 사후 세계를 노래하였다. 국가의 이념에 따라 사후 세계가 부정되었던 당대의 풍토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따라서 주장은 설득력을 지녀야만 했다. <선종가>는 이를 위해 객관성과 명확성을 내세웠다. 인간의 생과 사의 과정과 그 이후의 모습을 가감 없이 묘사하여 현세의 덧없음을 그렸다. 이를 바탕으로 현세에서의 삶이 기준이 되어 천국과 지옥으로 갈 수 있음을 말하였다.

한편, <사심판가>와 <공심판가>는 <선종가>에 비해 사후 세계에 대하

여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그리고 있다. 이 작품들은 제목에서 드러나듯 각각 사심판과 공심판이라는 재판의 모티프를 적극 차용하였다. 특히 그러한 모티프를 통해 인간의 실존적 불안을 자극하는 한편 희망의 플롯으로 신심을 강화하는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불안과 희망을 중심축으로 하는 감정 서사 구조는 천주가사의 전형적인 수사학 기법이다. 그러나 <사심판가>와 <공심판가>는 여기에서 나아가 재판 모티프와 등장인물을 이용해 기존의 작품들보다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여 의의를 확보하였다. 즉, 이질적인 감정의 큰 결을 동시에 제시하면서 희망을 주는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더욱 부각시키는 데 효과적인 방법을 고안하여 적용했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내러티브 구성은 이 작품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천주가사의 목적은 천주의 가르침을 알리고 사람들을 그 가르침으로 이끄는 것이다. 따라서 가사를 접한 향유자들에게 천주에 대한 희망, 나아가 승배의 감정을 갖게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독실한 천주교 신자가 되도록 유도한다. 그런 의미에서 세 작품은 불안과 희망이라는 감정을 축으로 하는 보편적인 천주가사의 서사전략을 이용하면서도 극적인 구성으로 천주교의 신앙을 알리고 사람들의 의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대표적인 가사라고 할 수 있겠다.

더불어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불안-희망의 수사학이라는 전략이 다른 종교가사와 변별되는 지점이 있는가에 대한 연구도 가능할 것이라 본다. 즉, 이 시기 다른 포교가사들과 함께 거대 담론 내에서 활성화되었는지, 혹은 각각의 개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의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향후 과제로 남겨 둔다.

**【참고문헌】**

- 고성혜, 「천주가사 <사향가>의 감성적 설득기법」, 『감성연구』 제15집,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인문한국사업단, 2017, pp.57-88.
- 금장태·진순옥 외, 『순암 안정복의 서학인식과 교육사상』, 성균관대 출판부, 2012.
- 김기종, 「조선후기 문학작품의 지옥 형상화와 그 성격」, 『동양고전연구』 제66집, 동양고전학회, 2017, pp.129-162.
- 김문태, 「천주가사 <사향가>의 교리 실현화 양상」, 『신학전망』 제184집, 광주가톨릭대학교 신학연구소, 2014, pp. 114-145.
- \_\_\_\_\_, 「천주가사 <스심평가> · <공심평가>의 교리 형상화 양상과 복음화 방향」, 『신학전망』 제190집, 광주가톨릭대학교 신학연구소, 2015, pp.141-172.
- 김수태, 「최양업 신부의 한국천주교회사연구 - 가문의 순교자 전기를 중심으로-」, 『교회사학』 제10집, 수원교회사연구소, 2013, pp.87-120.
- 김영수, 『천주가사 자료집』 上, 가톨릭대학교출판부, 2000.
- 김은희, 「<사향가>에 대한 일고찰」, 『반교어문연구』 제34집, 반교어문학회, 2013, pp.135-172.
- 김종진, 「19세기 불교가사의 작가 복원과 그 문화사적 함의」, 『국제어문』 제35집, 국제어문학회, 2005, pp.37-69.
- 김중원, 「<思郷歌>의 長型化 樣相과 그 意味」,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김희정, 「한국 유교의 근본주의 : 조선 유교의 이단론(異端論)을 중심으로」, 『한국종교연구』 제10집, 서강대학교 종교연구소, 2008, pp.1-10.
- 나희라, 「통일신라와 나말려초기 지옥관념의 전개」, 『한국문화』 제43집,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08, pp.245-265.
- 류한영, 「최양업 신부의 사향가에 나타난 선조들의 신앙과 영성」, 『땀과 꿈의 사제 최양업』,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2009.
- 리처드 래저러스·버니스 래저러스, 정영목 역, 『감정과 이성』, 문예출판사, 1997.
- 박금옥, 「최양업 신부의 선교 활동과 그 의미」, 『교회사연구』 제14집, 한국교회사연구소, 1999, pp.99-142.
- 방태남, 「천주가사 <스향가>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 배티 사적지 편, 『최양업 신부의 전기 자료집 제1집 : 최양업 신부의 서한』, 천주교 청주교구, 1996.

- 세실 허지스 외, 안교성 역, 『영국성공회 선교사의 눈에 비친 한국인의 신앙과 풍속』, 살림, 2011.
- 신대원, 「최양업 신부의 생애와 교회사적 몇 가지 쟁점 고찰」, 『교회사학』 제8집, 수원교회사연구소, 2011, pp.127-188.
- 양희찬, 「국문학의 입장에서 본 최양업 신부의 천주가사」, 『최양업 신부의 선교활동과 천주가사』, 양업교회사연구소, 2003.
- 유병일, 「천주가사를 통해 본 최양업 신부의 신앙」, 『사목』,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84, pp.45-52.
- 윤인선, 「최양업 신부 서한에 나타난 고난 경험에 대한 치유의 글쓰기」, 『교회사연구』 제46집, 한국교회사연구소, 2015, pp.43-76.
- 장인산, 「최양업 신부의 천주가사의 가르침에 대한 교부학적 고찰」, 『신학전망』 제162집, 광주가톨릭대학교 신학연구소, 2008, pp.48-75.
- 정양모, 「최양업 신부의 사목과 사상」, 『종교신학연구』 제7집, 서강대학교 비교사상연구원, 1994, pp.213-242.
- 조규식, 「최양업 신부의 영성」, 『교회사연구』 제14집, 한국교회사연구소, 1999, pp.143-179.
- 조원형, 「천주가사 <사향가>에 대한 텍스트언어학적 검토」, 『텍스트언어학』 제24집, 2008, pp.143-165.
- \_\_\_\_\_, 「천주가사 <사향가> 개작본의 텍스트 구조 대조 분석」, 『교회사연구』 제36집, 한국교회사연구소, 2011, pp.5-28.
- 조지형, 「최양업 신부 소작 천주가사의 목적과 특성」, 『누리와말씀』 제34집, 인천가톨릭대학교 복음화연구소, 2013, pp.321-349.
- 주교회의 성서위원회, 『성경』,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1.
- 진익승, 「예술창작에 있어 종교적 성향의 진정성」, 『종교문화학보』 제8집, 한국종교문화학회, 2011, pp.5-22.
- 차기진, 「최양업 신부의 생애와 선교활동의 배경」, 『교회연구사』 제14집, 한국교회사연구소, 1999, pp.21-57.
- \_\_\_\_\_, 「최양업 신부의 천주가사와 저작 배경」, 『최양업 신부의 선교활동과 천주가사』, 양업교회사연구소, 2003.
- 최원오, 「최양업 신부의 천주가사에 대한 교부학적 연구에 관한 논평」, 『가톨릭신학』 제3호, 한국가톨릭신학학회, 2003, pp.217-220.

파리 외방전교회, 김승욱 역, 『조선 천주교 그 기원과 발전』, 살림, 2015.

한명수, 「인간의 본향을 생각하는 노래, 사향가」, 『오늘의가사문학』 제13집, 고요아침, 2017, pp. 71-84.

\_\_\_\_\_, 「죽음에 대한 가르침을 알기 쉽게 부른 선종가」, 『오늘의 가사문학』 제17집, 고요아침, 2018, pp.82-91.

Abstract

Catholic Gasa and Rhetoric of Anxiety-Hope: Focusing on  
<Seonjongga>, <Sasimpanga>, and <Gongsimpanga>

Ko, Seong-hye

This writing starts from the Priest Choi, Yangeop's view of those days and the question of why he selected the Catholic Gasa as the means of mission work. He has been highlighted among the writers of the Catholic Gasa in the 19th century. Thus, moving on from the studies on the individual works which have been completed, it analyzed his works' meaning in the Catholic Gasa.

For this, it first made <Seonjongga>, <Sasimpanga>, and <Gongsimpanga> that are judged to have representativeness and distinction as subjects of the study. And it examines the aspects of the afterlife described in the texts and the methodical characteristics to convey them to readers. It traces universal rhetorical techniques of the Catholic Gasa and at the same time, shows the meanings of the texts through the process.

Chapter II examines the denial of this world and the afterlife in the Catholic doctrine. In the Joseon Dynasty, it was acceptable that the views of the afterlife were denied resulting in Confucian ideology at the time. And the Catholics were scattered in all parts of the country and in perilous spiritual conditions because of persecution. What Choi, Yangeop did in this situation was to inform people of being rewarded with faith in different endings when they believe in Catholicism and lead a devout religious life. So, he presented objective evidence of the afterlife and clearly proved it in the <Seonjongga>.

Chapter III analyzes the <Sasimpanga> and the <Gongsimpanga> and examines the construction of the narratives that stir emotion. All the

works adopt a trial motif called <*Sasimpan*> and <*Gongsimpan*>. They comprise the structure to incite human existent anxiety and strengthen faith with plots of hope. The emotional narrative structure that makes anxiety and hope pivotal is the typical rhetoric technique of the Catholic Gasa. However, the <*Sasimpanga*> and the <*Gongsimpanga*> move on from this and secure significance by creating more dramatic scenes than the existing works with a trial motif and characters.

This writing examined how the afterlife was visualized through the <*Seonjongga*>, the <*Sasimpanga*>, and the <*Gongsimpanga*>, emotion described in the process to mold the world, and what they wanted to survive the process. In conclusion, the three works can be the representative Gasa works that informed people of Catholicism by using the narrative strategies of the universal Catholic Gasa and had a direct effect on their consciousness.

Key Word : Catholic Gasa, <*Seonjongga*>, <*Sasimpanga*>, <*Gongsimpanga*>, Rhetoric, Persuasion, Emotion

고성혜

소속 : 전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전자우편 : charminghye@nate.com

이 논문은 2020년 05월 15일 투고되어  
2020년 06월 14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20년 06월 16일 게재 확정됨.